



8일 'CGV 광주 10'에서 열린 영화 '화려한 휴가'(26일 개봉예정) 시사회에 참석한 김성경 등 주연배우들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시사회에는 5·18 유가족·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유홍가·냉각탑·공사장 시끄러운 소리...찜통더위에 문도 못열어

# “여름철 소음규제 기준 마련해야”

### ‘70dB’ 일률 규제...주민들 민원 쏟아져

‘찜통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하는 주민들이 인근 공사장이나 유홍가 등지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이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공사장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낮 동안 70dB 이하로 규제하는 등 여름철 소음 피해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모(41)씨는 자신의 집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모 유치원 건물에서 나는 기계 소음으로 인해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냉방방열비에서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밤 10시만 되면 ‘윙~’하는 소음이 울리는 통에

찌는 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며 최근 광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모(45·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지난달 남구청에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도 규정에 대해 야간작업을 자제하도록 부탁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박모(50·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연주 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구청에 호소했다. 서구청은 그러나 술집 소음은 현행 ‘소

음진동규제법’의 단속 대상이 아니며 야간 야의 영업 중단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신모(37)씨는 광산구 소촌공단 인근에 사는 데, 밤에도 계속되는 기계음 때문에 가족들이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인다고, 여름철에는 낮에만 공장을 가동하게 하는 방법이 없었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나모(29·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덜덜덜덜’ 거리는 맨홀뚜껑 소리가 들기 싫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직접 소음 계기를 위해 나섰다. 맨홀뚜껑 위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 소음을 없애기 위해 김씨 가족은 맨홀을 열고 소리의 원인을 제거했지만 최근에는 그 옆의 맨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소음 민원은 1월 30건 ▲2월 27건 ▲3월 27건 ▲4월 61건 ▲5월 65건 등에 머물다가, 기온이 올라간 지난달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소음 민원의 70% 정도가 6~8월에 집중됐다.

하지만 소음진동규제법은 주간·주식·심야로만 구분해 소음을 규제하고 있을 뿐, 계절별 소음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 관계자는 “틈나는 대로 민원 현황을 찾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급증하는 민원을 현행 법규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 등을 고려해 계절별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세제 담합’ LG생활건강·애경산업 등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 CJ와 CJ 라이온에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

로 담합한 혐의로 이 회사들을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들의 담합행위를 약식기소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통상회부 절차를 밟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담합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에 151억여원, 애경산업에 140억여원, CJ 라이온에 12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연합뉴스

## 북부경찰, 42억 사기 수배자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8일 신용불량자에게 수신했던 부정 카드를 발급해준 속칭 ‘카드깡’ 업체 직원 황모(37·화순군 화순읍)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2년 10월 광주 모 은행 카드 발급 담당 직원과 짜고 신용불량자 100여 명에게 부정으로 카드 발급을 해주고 유가증권을 위조, 42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성년 하루 부족 손님에 술 판 나이트클럽

# “영업 정지는 억울” 소송

### 광주지법 판결 주목

하루만 지나면 성인이 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본보 1월 2일자 7면>을 받은 나이트클럽 업주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 모 프로야구 구단 선수 A(19)군은 올해 1월1일 미성년자 ‘딱지’를 됐다. 청소년보호법이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제2조)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군은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31일 새벽 1시에 미성년자 출입 및 술 판매가 금지된 광주시 동구 P나이트클럽에 갔다.

나이트클럽 측은 “2시간 전 입장한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는 A군의 말에 현관문을 열어줬다. A군의 고교 동창인 모 프로야구 선수와 S대학 야구선수들

은 당시 19세여서 출입이 허용됐다.

A군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여·21)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났고, 동구청은 지난 4월 ‘2개월 영업정지’(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통보했다.

클럽 측은 그러나 “단 하루가 모자란 데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받아줬고, 행정소송은 오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하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억울함은 이해하겠지만 A군이 법적 미성년자여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일부 업소들이 영업정지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행정심판·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나원침 (7256) 김종두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연도, 도림, 대곡

KCC광도, 시스텔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림, 대곡, 대림

실리콘·방수·점착·타이프

## ‘방역’하다 중독·화재

### 노약자 피해·화재 오인 신고도 잇따라

모기를 쫓기 위한 ‘연막 방역’ 중 사고와 화재로 오인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0시44분께 목포시 상동 H중학교 관리인 김모(62)씨가 교내에서 연막 방역을 한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 119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연막소독약에는 경유와 살충제가 70대 1 비율로 들어 가나 살충제 기준보다 더 많이 혼합될 경우 구토 등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4시48분께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김모(47)씨의 축사가 방역 중 부주의로 불에 타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방역기의 가열된 부분이 축사 내 빗줄에 닿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기는 400~600도까지 가열되기 때문에 화상 등 위험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오후 1시20분께 여수시 학동 H모텔에서 연기가 나자 행인이 신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모텔은 이날 연막 방역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름철이면 각 소방서별로 연막 방역을 화재로 오인·신고하는 경우가 하루 1~2건에 이른다.

소방서 관계자는 “연막 방역은 살충제에 확산제를 섞어 경유를 태우는 것이므로 노약자들은 연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방역기가 가열되면서 화재 및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며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을 막기 위해 소독을 할 때는 119에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폭행·쌍소니

○광주 북부경찰은 8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위모(21·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함께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보험 처리해 원만히 합의하자”고 말한 데 격분, 주먹을 휘두른 위씨의 친구 김모(21· )씨도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3일 밤 10시4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 전망대 앞 도로에서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김모(26·장성군 북일면)씨의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사실이 틀릴날 것을 우려해 폭행하고 쌍소니를 했다고.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전도지의 중점주관을 우리는 3,813 회대당!

8월 11일 14:00~16:00

수원신도시 포오리

문의전화 0821-367-9000

OPEN

EVENT

여름 신상품

30~50% SALE

현대백화점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감염예방기기 렌탈사업 개시!

1년에 한번쯤 귀찮은 대청소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기회가 있습니다.

수원신도시 포오리

0821-531-2811

011-9618-5258